



한국 미술 라키비움을 이루어가며

김 달 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지난 3월12일은 내 생애 역사적인 날이다. 서울 종로구 홍지동 상명대 입구, 새로 마련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사옥에서 오후 3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후원회 정기 총회를 갖고 6시 개관식을 성대히 마쳤다. 김달진미술연구소가 2005년 가나아트센터에서 제공받았던 사무실을 나와 평창동, 2007년 통의동으로 이전, 200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했다. 그후 2009년 창성동을 거쳐 2010년 마포구 창전동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0예술전용공간 임차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건물 보증금을 지원받아 한국미술정보센터를 개관했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되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언론에까지 보도되었지만 지원금은 반환되고 자력으로 건물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개관식에는 김원 광장 건축환경연구소장, 김재환 종로구청 문화과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김홍남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쾌정 한국박물관협회장, 박래경 김



달진미술자료박물관후원회장, 박암종 서울특별시박물관협회회장, 안휘준 국외소재문화재단 이사장, 유인촌 前 문화체육부장관, 유준상 前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윤범모 한국큐레이터협회장, 윤진섭 미술평론가, 이기영 월간미술 대표, 이석우 검재정선미술관장, 이현주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홍보담당관, 장사익 국악인, 최효준 前 경기도미술관장 등 많은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나를 부르는 호칭은 몇 가지가 있다. '소장님'은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이기 때문에 부르는 명칭으로 가장 많이 듣는다. '관장님'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관장이기 때문에 박물관, 미술관 종사자들로부터 듣는다. 혹자는 서울아트가이드를 발행

하기 때문에 미술잡지사 '사장님'으로 부른다. '회장님'은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의 회장이기에 듣게 되었다. '아키비스트'호칭은 2013년 중학교 도덕교과서②(금성출판사)에 <직업 속 가치탐구> 코너에 나를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다-김달진'에서 아키비스트란 직업으로 소개되었다. 부연설명에는 그 뜻이 '작품 및 작가에 대한 기록이나 전시, 미술품에 대한 기록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 풀이되어 있다.

나는 미술자료수집가로 중학교 때 시작한 미술자료를 서점, 전시장을 통하여 수집했으며 코베이경매에서 구입도 하고, 이제는 박물관이 알려져 수증도 많아졌다. 나는 기록자로서 많은 미술자료를 연재했고, 미술연감에 자료를 제공하고 2010년 「대한민국미술인 인명록 1」을 발간했다.

아카이브 스토리 김달진과 미술자료

2015.3.12 - 5.31



김달진미술연구소
Kim Dal-jin Art Research Institute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길 11-1 (남대문시장) 1층
02-771-1111 www.kdaljin.com

나는 연구자로서 한국근현대미술 연구 특히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박물관 전시회를 기획했으며 학술적인 단행본을 발간하여 2014년 한국미술저작 출판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는 언론인으로 1978-80년 월간 전시계에 근무했고,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으로 가나아트 잡지 발간에 참여하고 2002년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하여 발행하고 있다.

나의 지나간 별명 중 하나는 '금요일의 사나이'다. 매주 금요일이면 인사동·사간동 일대를 돌며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으로, 그 당시 화랑사람들은 자료를 그렇게 열심히 모아 무엇을 하느냐 묻곤하면서도 내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었다. 그 현장에서 얻은 인연들이 지금까지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제는 많이 바뀌어 일일

이 현장을 다니며 자료를 받아오지 않아도 많은 곳에서 미술관련 자료들을 발송해온다. 더구나 연구소를 통해 발행하고 있는 잡지에 신간소개를 요청하며 미술도서들을 보내주고있다. 이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나의 국립현대미술관(1981.9~1996.1) 근무는 어쩔 수 없이 기능직 10등급에 한계를 느껴 공무원을 그만두었지만, 내 인생의 20-30대로 그 당시의 경험은 자양분이 되었고 고 이경성 관장과의 인연은 오늘 날 나를 있게 해주었다.

지난 세월동안 자료를 모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미술기초자료로 정리해 미술계 현상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공적가치를 창출해 공유하고자 했다. 그러나 많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는 자료보존을 위한 공간과 예산문제이다. 둘째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자료들의 매체와 그만큼 모호해진 분류기준이다. 셋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가들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무엇하나 쉬이 될 일은 없지만 이전까지 그래왔듯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일들도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하신 일도 많으시지만 하실 일도 많습니다.” 2005년 11월,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현 국립중앙박물관

장)가 연구소에 내방하여 방명록에 남겨준 말이다. 앞으로도 소장한 자료들을 정리해 전시로 만들고, 단행본을 발간하는 일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주요자료는 목록화하여 온라인에서도 검색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SNS시대 자료를 모바일에서 검색을 하게 만드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한 지난한 일이다. 국내 미술계가 부닥쳐 있는 한국미술의 정체성 문제, 미술시장 활성화, 한국미술의 해외진출 등 많은 문제들의 단초가 오늘 내 가방 안에 들어있는 작은 전시리플릿 한 장, 메모 한 줄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 정확한 역사로 남는다”(줄고- 관람객은 속고 있다. 1985)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미술 아카이브를 우리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담론과 제반현상을 수렴하는 중심개념으로 특성화시키고, 이러한 기록성을 근간으로 새로운 시각예술문화의 플랫폼으로서 미술자료박물관의 의미와 위치를 설정하였다. 앞으로 목표인 인쇄 출판물의 도서관(Library), 기록자료의 기록관(Archive), 실물작품의 박물관(Museum)을 복합적으로 통합한 라키비움(Larchiveum)을 이루어 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 미술역사의 증거물인 아카이브와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